

# **데칼로그 (4)**

**- 명의로용 -**

**출애굽기**

**20:7**

# 도박의 악순환

## 강원랜드의 골치거리, 대포차

도박자금을 위해 전당포에 맡긴 수많은 차들.  
하지만 찾으러 오지 못하는 주인들로 인해 이 차들은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팔립니다.  
결국 범죄가 발생하면 그 죄는 원 차주가 뒤집어쓰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됩니다.  
마치 세번째 계명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 내 이름 함부로 쓰지마!

## 명의도용의 문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7)

## 망령되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고대시대에는 이름에 그 존재의 능력이 담겨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맹세나 마술, 축복과 저주같은  
상황에 종종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에 자신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하나님의 진명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 3:14)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없다**

이름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렇기에 세상 만물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세상의 언어로는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 찬양과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 가운데 함부로, 원하지 않는 때에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의 사용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름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